논픽션 小說 많아졌다

소설문학에 새로운 版圖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편소설들이 전통적인 픽션(虛構) 형식보다 실제 사건이나 실존인물 또는 작가 자신의 自伝的인 소재를 취급한것들이 크게늘어나 「넌픽션 소설 시대」를 맞은 느낌을 주고 있다。

「베스트셀러」 많아

이같은 양상은 이른바 문제작가로 손꼽히는 소설가에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作壇의 경향에 이런 새로운 시도가 제기되고있는 것은 작가들이 오늘의 여러가지 상황적 어려움을 감안, 소설세계의 폭을 넓혀보려는 공통된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소설이 갖는 상상력의 한계, 그리고 공허한 내용의 허구소설보다 경험적 긴장감을 요구하는 독자들의 취향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논픽션 소설에 맨처음 붓을 뜬인 것은 黃晳暎씨의 장편 「어둠의자식들」。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지목되던 이 작품은 기지촌에서 자란 인물을 주인공으로등장, 上京한 이후 그의 창녀촌, 뒷골목의 그늘진 삶의 편력을 사회고발적으로 엮은 소설。그 이후 甲乙丙 三篇의 소설들이 잇달아 쏟아져 나와 소설계가 새 전환기를 열게된 것이다。

요들들어 나온 李炳注씨의 장편 未完의 劇」은 영화배우 崔銀姬씨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소설로 再現, 작가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그녀의 여러가지 미묘한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추리해본 작품이다。

「어둠…」부터 시작

金源一씨는 자기 고향에 벌어진 실제적인 얘기를 「불꽃의 祭典」에 담아냈다。

6·25가 터지기직전, 몇달동안에 일어난 일련의사건들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유명한 여인 공옥진씨의 고뇌, 끝없는 방황의 발자취를 소설로 말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내 젊은날들이 영원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숨쉬고있다」고 自伝的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李炳注씨 ◇文澤太씨 ◇黃晳暎씨 ◇李文烈씨 ◇金源一씨 ◇金聖東씨 ◇吳仁文씨 ◇河有祥씨

허구적인 素材 탈피 實際사건 중심으로

독자도 體驗的긴장감 요구

"狀況의 어려움…創作技法의 폭 넓혀"

일부作家는 自傳的얘기 다뤄

이념적 방황, 농민들의 고통스럽게 삶을 통해 당대 사회를 재조명하고 있다。

일선 신문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작가 吳仁文씨는 경제계에서 몸의를 일으켰던 크고 작은 사건과 非理를 1천여명의 實名이 등장하는 「權力과 金力」이란장편으로 묶어, 企業소설이란 새 명칭을 붙여놓고 있다。

「恨의 작가」로 불리고 있는 文浮太씨의 「병신 춤」은 「젊은 날의 肖像」이란 장편에서 지난 날 자신이 걸어온 젊은 날의 힘겨웠던 생활의 고통과 정신적 방황을 소설로 형상화한 家門의 恨과 비극을 그린 것이다。

"젊은날의 그리움"

80년대 문단의 新鋭로 각광받고 있는 李文烈씨。그는 「젊은 날의 肖像」이란 장편을 지난 날 자신의 고향에서있었던 實話를 소설로 형상화한 家門의 恨과 비극을 그린 것이다。

「젊은날의 그리움」

작가는 이 소설에 대해 「내 젊은날들이 영원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숨쉬고있다」고 自伝的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10代에 어느 老僧을 따라 入山, 10여년간 修道생활을 하다 환속한 젊은 작가 金聖東은 자신의 求道편력을 「만다라」로 내보내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후, 최근에 또하나의 自伝的素材로 「오막살이 집 한채」를 만들어 냈다。작가의 체험적 求道記 소설로 자신의 修道과정의 방황을 작품으로 엮어낸 것。

극작가 河有祥씨도 그동안 많은 자료를 모아 일종의 實錄소설 「將軍과 大臣」을 모처럼 선보여 이채를 띠고 있다。日帝의 극동 침략사의 흑막, 잔학상을 폭로한 작품。

創作의 正攻法 변형

이밖에도 예수의 일생을 좀더 냉정한 시각에서 소설로 쓴 趙廷來씨의 장편 「목수의 아들」, 제일통포 民団간부의 애국운동을 소설화한 黃松文씨의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등 많은 實話 작품이 나와 소설 문학의 新氣流를 엿보이게 하고있다。

문학평론가 權寧珉교수(서울대)는 소설의 관객이 작가의 경험적 무대로 옮겨지고 있는데 대해 「오늘의 사회적인 여러가지여건으로 미뤄, 허구적 긴장감보다 체험적인 긴장감이 더 강렬하게 요구되고 있기때문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 작가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을 오늘의 상황에서 조명하려는것은 소설의 正攻法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처리하려는 역사의식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李相鉉기자〉

文化 <文學>

演劇 단신

「知봐라 돈놔라」

巫世衆전위예술단 공연

巫世衆전위예술단은 「통막살」에 이은 두번째 작품 「지(知)봐라 돈놔라」를 센터소극장에서 공연한다。낮3시, 밤7시。巫씨가 베틀린에서 공연했던 고료극 「禮봐라」의 후속작품으로, 知의 횡포와 독선을 고발하고 그것을 이겨내는과정을 짓, 춤, 동작을 주로 하는 마당극형식의 반풍작극으로 그려낸다。

巫世衆씨와 유홍영 권순철등 드라머센터출신및 재학생 20명이 출연한다。

「ET」地方공연

세븐 어린이극장은 원리엄 코츠원작 「ET」를 李尙和각색 權在祐연출로 4개도시에서 순회공연을 가진다。

△대전=4월16~17일 시민회관대강당△부산=4월23~24일 시민회관대강당△대구=5월1~3일 시민회관대극장에서 공연한다。

7~8일 남도예술회관。조영규 김진선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출연한다。

「정복되지않는…」

극단 新協 18일까지

극단 新協은 서머세트 모옴作 沈雲萬 연출 「정복되지 않는 여자」를 문예회관대극장에서 공연한다。12일부터 18일까지(오후 4시30분, 7시)。출연 姜萬喜 承愛順 高雪峰 박승아 裵珍桓 姜桂植。

세실劇場 「홍당무」

극단 세실극장은 J르나프作 蔡允一연출 「홍당무」를 명동 엘칸토 예술극장에서 17일까지 공연한다。오후4시, 7시。출연 蔡承意 金東洙 李慶華 全秀종철등。

「단톤의 죽음」

극단 한뜰 23일까지

극단 한뜰은 게오르그 뷔히너作 「단톤의 죽음」을 김창화연출로 12일부터 23일까지 문예회관소극장에서 공연한다。개막은 오후3시, 7시。기주봉 조경래 조한희 이봉규 조용태 한세훈 송이호 최일주등 22명 출연。

「품바」 연장공연

푸른극단은 김시라작 김시라-조일도공동연출 「품바」를 연극 소극장 말뚝이에서서 4월말까지 연장공연한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7시30분, 토일요일 오후4시, 7시30분。정승호 정규수가 더블로출연한다。

「處容의 웃음소리」

극단 서울무대 17일까지

극단 서울무대는 신상성작 이인재연출 「처용의 웃음소리」를 실험극장 소극장에서 8월부터 17일까지 공연한다。오후 4시30분, 7시。현대 지식인의 의처증을 조명해본 사이코드라머。출연 천전행 박정순 김종철등。

「공처가를 울린…」

극단 동인극장 20일까지

극단 동인극장은 안톤체홉原作 朴彩奉연출 「공처가를 울린 빚장이」를 소극장 연극촌에서 20일까지 공연한다。개막은 평일 오후4시30분, 土·日은 오후3시, 5시다。

「발중부터 아침…」

극단 新協 22일부터

극단 新協은 일본 모찌쓰키 레이이(望月明)의 소설 「발중부터 아침까지」를 李化洙각색 李鏞雨연출로 실험극장 전용극장에서 22일부터 5월1일까지 공연한다(오후 4시30분, 7시30분)。출연 裵熙英 劉斯潤。

◇巫世衆전위예술단의 공연 작품 「知봐라 돈놔라」 한장면.

一事一言

바다를 開發하자

許 亨 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들여다보노라면 우리는 어차피 바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地政學的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은半島국가로서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때문이다。일찌기 삼국시대의 百濟라는國号는 바다를 다스린다는 百家濟海에서 따온 것으로서 이때 이미 항해술과造船術이 발달되었다고 전해지고있다。

또 신라시대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했고, 李舜臣장군이 세계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은 우리 역사상 그리 많지 않은 장한 일들이며, 西欧의 해양개척사를 훨씬 앞지른 사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農耕地 한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조상들의 이러한 진취적인 해양개척 사상이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면 세계역사는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왔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賤視하던 조선시대의 유교사상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멀리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六堂 崔南善선생은 우리민족이 천혜의 재산인 바다를 인식못하고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文弱해지고 웅대한 기상이 없어졌다고 개탄한바 있다。우리는 최근 수년등안에 해양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해양국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토의 30%밖에 되지않는 농경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국토의 3배가 넘는 연안바다를 개발해야는 당위성이 있다。

더우기 새로 발효될 유엔 해양법에 의하여 公海上의 15만평방㎞를 우리의 鍾区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감안한다면, 해양이용의 앞날은 더욱 밝은 전망을 갖게한다。

토인비나 허만 칸은 21세기에는 세계문명이 동아시아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했거니와, 우리나라는 바다를 개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역이될수 있도록 우리의 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해양연구소장·理博〉

새로나온 책

韓國文學과 基督敎 ····趙神權著

연세대 영문과 趙神權교수가 기독교의 수용경로, 성서와 찬송가 번역의 문학사적 의의등을 고찰한 책. 연세대출판부발행, 3천5백원.

韓獨文學比較硏究 3 ····李裕榮著

독문학자 李裕榮교수(서강대)가 1945년까지의 현대독문학의 수용과정을 다룬책. 서강대출판부 발행, 5천5백원.

社會保障-社會開發論 ····孫鎭奎著

동국대 법정대 교수인 著者가 사회복지행정, 사회개발에 관해 쓴 연구서. 집문당발행, 5천5백원.

現代國際聯合論 ····崔鍾起著

서울대 행정대학원 崔鍾起교수가 국제연합의 이상과 현실을 논한책. 박영사 발행, 7천5백원.

검은 시간이 무덤을파고····金耀燮著

중진 시인 金耀燮씨의 여덟번째 시집. 그 동안의 대표작과 新作을 묶은 것으로, 「국어의 주인」 등 58편을 실었다. 청하발행, 2천원.

역사는 자유롭다 ····강인섭譯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미쉘 포니아토프스키가 현대문명의 위기를 분석, 미래사회의 구조를 조명한책. 한벗발행, 2천4백원.

상황V ····朴貞子譯

장폴 사르트르가 54년~63년 사이에 발표한 평론, 에세이, 연설집. 「상황」 시리즈 제5권으로, 상명여대 전임강사 朴貞子씨의 번역. 사계절발행, 2천5백원.

刺客列傳 ····李外秀著

작가 李外秀씨의 대표소설집. 나남文學選 제1권으로 「刺客列伝」 「훈장」 「高手」 「장수 하늘소」등 중-단편11편과 평론가 趙東珉의 「李外秀論」을 실었다. 나남발행, 3천4백원.

낮아지는자 높아지는 자····김정훈著

관동대학 김정훈교수가 방송, 신문에 발표한 설교집. 보이스사발행, 1천5백원.

해외유학과토플대책····시사영어사編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해 각종 유학정보, 절차, 시험요령 등을 소개한 책. 시사영어발행, 3천5백원.

국제금융 및 資金관리론····金環林著

한국은행 金環林씨(인천지점次長)가 국제 자금조달과 金利의 효율적관리기법을 다룬 책. 法文社발행, 7천 8백원.

교회경제 ····尹承思著

제주전화국장尹承思씨가 교회재정, 교회경제체제 혁신에 관해 논한 책. 성광문화사발행, 2천5백원.

情熱의 길 ····임선희譯

캐나다의 여류작가 엘리자베드 리가 인간의 삶과 사랑과 신앙에 관해 쓴 실화소설. 宇石발행, 2천8백원.

새가정 유아교실 ····大學堂편

「임신과 출산」, 「영양관리와 음식」, 「질병과 가정간호」, 「유아교육」, 「육아일기」 등 7권으로 묶은 육아지침서. 대학당발행, 6만3천원.

유치원 학습패도 ····김광웅 홍기형감수

유아-유치원 교사용 지침서. 수업내용을 월별로 구분, 문교부 유아교육 자료집에 맞춰 엮었다. 유아교육사발행, 4만원.

國土와 民衆 ····朴泰洵著

중견작가 朴泰洵씨의 紀行集. 월간 「마당」誌에 연재했던 「국토기행」을 改題한 것이다. 한길사 발행, 4천원.

물위의 沙漠 ····崔仁浩著

소설가 崔仁浩씨의 장편소설집. 사랑의 의미와 고뇌를 묘파한 작품이다. 갑인출판사발행, 3천원.

小說原論 ····曺南鉉著

문학평론가 曺南鉉 교수(건국대)가 동서양 소설의 발달과정, 특질, 작중인물론, 주제론등을 다룬책. 고려원발행, 5천5백원.

文學

대학敎材 詩語표기 가지각색

「채찍-채쭉」 「마침내-마츰내」

閔忠燮씨 조사연구

▽…전국대학국어교재에 실린 現代詩의 表記가 가지각색 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우리의 詩작품 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原典을 어느것으로 확정하느냐에 있으며, 이같은 實証的작업이 없이는작품의 정확한 분석·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富川공업전문대 교수 閔忠燮씨가 전국의 61개대학 국어교재를 대상으로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가장많이 실린 작품은 李陸史의 「絶頂」이 29회로 최고이며 朱耀翰의 「불덩이」 27회, 柳致環의 「生命의 書」가 26회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전국대학국어교재에 실린 詩人 자체의 빈도수는 徐廷柱 59회, 金素月 58회, 柳致環 56회를 비롯, 韓龍雲 尹東柱 趙芝薰 金光均 李陸史 朴斗鎭 李相和 朴木月의 순위였다。

▽…그러나 詩語의 표기도 교재마다 서로다르며, 朱耀翰의 「불덩이」에서 「불덩이」와 「불덩어리」, 「스러져가는」과 「슬어져가는」 등으로 무려 81군데가 다른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柳致環의 「生命의 書」 역시 「알라의 神」과 「아라의 神」, 「차라리나는 어느 沙丘에」와 「차라리 어느 沙丘에」로 틀리거나, 말을 빼먹는 예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閔교수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오늘의 현대시 표기의 亂脈相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케하고 있다』고말하고 「현대 독자들 위해 현대표기법을 체택하더라도 詩的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原典의확정, 편집자들의교정에대한 성실한 자세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교정에 있어서 특히 맞춤법의 오류는 물론 詩行의 누락, 첨삭, 작품자료의 무책임한 転載는 표기를 그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되고있기 때문이다。

▽…문인협회가 납북된 일부작가의 「작품解禁」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鄭芝溶의 詩세계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 주어지고있어 문단, 학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와 東岳어문학회 공동주최로 16, 17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 시인 鄭芝溶씨는 「鄭芝溶 詩 평가의 문제점」이란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서 『그에 대한 종래의 비평태도는 지양돼야 할것이라고 문제를제기, 상당한논란이예상되고있다。

▽…鄭씨는 메슈아놀드의 말대로 詩작체보다도언어와 사상 및 시의 발달 과정에 역점을 두거나, 시인의 개인적인 嗜好나 환경을 중시하는 두가지 평가방법이 있는데 鄭芝溶의 詩평가에는 지금까지 이 두가지 모두 초현실주의를 포괄한 것, 그것도 西欧문학의 수용기인 청년시절의 정신적 환경에 한정시켜 연구해왔다』고 지적했다。가장 개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실험을 전개한 그의 작품해석이나 분석도 『이미지즘 초현실주의를 포괄한 모더니즘의 일원으로서만 논의해왔다』면서 그의 多面的 실험의식에 대한 평가의 폭을 넓혀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鄭씨는특히鄭芝溶의 종교시는 모두 18편으로, 대다수 이북에서 발표된 훌륭한 작품인데다 동양정신을 추구하고 있어 그의 시에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鄭芝溶의 종교시는 모두 알파한 귀로 듣는다면 비꼬는 소리같기도 하겠지만 실은 거의 진심으로 뇌까려본 소리였다。

『저 딴 생각은 없읍니다』

조금전에 한 말을 안심은 되십니까。

『지금 이대로만 지낼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읍니다。』

여기서부터 안심의 어세는 삼복 기가 죽은듯 들렸다。

『저라는 여자 어떻게 자란 것입니까。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린것이 절간구석에서 벌벌거리며 자라온 천덕꾸러기가 아닙니까。그러다가 어찌 어찌해서 이같은 호강을 누리게 됐는데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읍니까。』

『그야 강화댁 자네 누가 보아도 놀랄진 않지。』

마주받는 서련방의 말。

『저라는 여자 어떻게 자란 것입니까。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린것이 절간구석에서 벌벌거리며 자라온 천덕꾸러기가 아닙니까。그러다가 어찌 어찌해서 이같은 호강을 누리게 됐는데 이 이상 무엇을 바라겠읍니까。』

뿐이었지요。그리고 그 광경을 어르신네께서도 친히 목도하셨읍니다。』

안심은 주워섬겼지만 서련방은 아직도 갑이 잡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한때 떠돌았던 풍문엔 이런 꼬리도 달려 있었읍니다。안심이란 여자가 그 종의 자식을 가까이해서 아들을얻고 그 아들아이를 어르신네 후사로 들이밀고자 획책하고 있다。』

서련방의 눈꼬리가 시름 떨떨 흔들렸다。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체 못할 화제였으니 말이다。

『남설치고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제가 설혹 그토록 못된 여자라고 칩시다。그리고 그 풍문대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아이가 대권을 계승할 날을 노린다고 합시다。도대체 그 날이 어느하세월입니까。그 아이가 이 나라의 집정자가 되자면 스무살은 넘어야 하지않겠읍니까。다시 말해서 이십년 후면 왔날을 기다리는 아득한 꿈이 아니겠읍니까。그런데 어르신네 연치 높으시기 그지 없읍니다。이건 발정맞은 소리 같습니다만 그 어른의 근력도 많이 쇠하셨읍니다。그러기에 한때 춘가(出家)를 강요하셨던 두 아드님을 찾으신게 아니겠읍니까。』

여기서 안심은 잠깐말을 끊고 서련방을 주시했으며, 서련방은 거의 반사적으로 안심의 설득을 이해하는 얼굴빛이 되었다。

『이것 저것 따지고 본다면 제가 어찌 무지개 보다도 허망한 꿈을 쫓겠읍니까。저 그렇게 아둔한 여자는 아니올시다。』

江華夫人 <88>

方基煥 作

金世鍾 畫

月刊 朝鮮 4 창간기념 특별增面

미스터리의 레저財閥 **明星그룹**

특집 **大學의 危機**

카리스마와 디모크러시 **李承晩論**

崔仁圭는 不正選擧元凶인가

돈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 宮柳마을, 참많이 변했지에

黃晳暎 연재소설 **武器의 그늘**

왜 나이키를 찾는가?

스타플레이어의 명성인가, 나이키의 품질인가.

테니스의 "존·매켄로"—
마라톤의 "알베르토 살라자르"—
미 프로야구의 "마이크 슈미트"등,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이 선택한 나이키.
인체공학과 초정밀 컴퓨터 설계로 만들어진 나이키는, 냉엄한 프로 세계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고 있읍니다.
발의 부상을 최소한으로 막아주고 피로감을 훨씬 덜어주는 나이키.
경기력을 월등하게 향상시켜주는 나이키.
새기록에 도전하는 집념의 플레이어들에겐 항상 나이키가 있읍니다.
승리의 그이름 나이키.
● 모양은 비슷해도 신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존·메켄로

NIKE®

주식회사 화승

NIKE는 미국 NIKE Inc.의 세계적인 등록상표로 화승그룹의 (주)화승이 제조하고 수출 및 국내시판하고 있읍니다.